『종교와 문화』 제44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23. pp. 1-39

사회적 혐오의 조절 변인으로서 종교적 규범
: 의심의 실증적 단서*,**

구 형 찬***, 유 지 현****, 박 한 선*****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1. 연구의 설계 및 절차
2. 연구 대상
3. 심리적 점화와 설문 진행
4. 데이터 분석 방법
Ⅲ.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정보
2. 통제 집단의 사회적 혐오 수준: 종교 간 비교
3. 점화 집단 간 사회적 혐오 수준 차이 분석
4. 종교별 점화 집단 간 사회적 혐오 수준의 차이
Ⅳ. 논의
1. 연구 결과의 함의
2. 연구 설계의 제한점
Ⅴ. 결론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9649).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음(IRB No. 2108/004-008).
*** 제1저자, 서강대학교 K종교학술확산연구소 연구교수
****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조교수

Ⅰ. 서론

혐오와 편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다른 종교, 다른 국적, 다른 인종, 다른 성별에 관한 혐오, 즉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혐오나 편견을 잠정적으로 '사회적 혐오'라고 부를 수 있다. 사회적 혐오는 고차원의 정서, 인지, 행동 체계를 지닌 인류 집단에서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 있고 빈번하게 재생산되며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1] 이처럼 특정한 패턴의 인간 현상이 지속해서 빈번하게 나타나거나 횡문화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경우, 그 원인과 기전을 인류의 진화된 본성, 특히 심리 기제와 인지체계의 특성을 통해 탐구할 수 있다. 이른바 진화인지적 관점(evolutionary-cognitive perspectives)이다.

사회적 혐오의 기원과 기전에 대해서는 다양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가설이 제안된 바 있다. 행동면역체계(Behavioral Immune System, BIS) 이론, 오류관리이론(Error Management Theory, EMT), CAD모델(Contempt Anger Disgust model), 도덕기반이론(Moral Foundations Theory, MFT),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Social Intuitionist Model, SIM), 사회기능적 접근(sociofunctional approaches), 기능적 유연성(functional flexibility), 인지적 부산물 가설(cognitive byproduct hypothesis) 등이다.[2]

---

1) 박한선·구형찬, 『감염병 인류』 (서울: 창비, 2022).

2) Gordon W. Allport, *The Nature of Prejudice* (MA: Addison-Wesley, 1954); H. Clark Barrett and Robert Kurzban, "Modularity in cognition: framing the debate," *Psychological Review* 113(3) (2006): 628; Catherine A. Cottrell and Steven L. Neuberg, "Different emotional reactions to different groups: a sociofunctional threat-based approach to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5) (2005): 770; Jesse Graham et al., "Moral foundations theory: The pragmatic validity of moral pluralism,"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San Diego: Elsevier, 2013), 55-130; Jonathan Haidt,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08(4) (2001): 814; Martie G. Haselton and David M. Buss, "Error management theory: a new perspective on biases in cross-sex mind rea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1) (2000): 81; Todd D. Nelson,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New York: Psychology Press, 2009); Mark Schaller, "The behavioural immune system and the psychology of human sociality,"

행동면역체계 이론에 따르면 혐오는 긴 계통학적 역사를 가진 정서다. 비인간 동물도 다양한 혐오를 보인다. 감염 위험성이 높은 대상이나 포식자를 향한 혐오는 적응적 반응이다.[3)]

오류관리이론에 의하면, 위험 속성이 강력할 경우 낮은 수준의 신호도 예민하게 감지하는 낮은 역치의 인지 시스템이 유리하다. 또한, 낮은 수준의 신호에 대해 높은 강도의 회피나 분노 반응을 보이는 편이 적응적이다.[4)]

CAD모델과 도덕기반이론은 혐오나 역겨움 정서 외에도 도덕 판단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5)] 이에 따르면 분노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과 공격의 태도(aggression)에 동기를 부여하고 역겨움은 일차적으로 회피의 태도(aversion)에 동기를 부여한다.[6)] 즉 혐오 대상은 선제적 방어기전을 활성화하는 자극이며,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 및 각종 도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7)]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 의하면, 특정한 상황에서 개체는 진화적 도덕 직관 및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66(1583) (2011): 3418-3426; Megan Oaten et al., "Disgust as a disease-avoidance mechanism," *Psychological Bulletin* 135(2) (2009): 303-321.

3) Mark Schaller and Steven L. Neuberg, "Danger, disease, and the nature of prejudice (s),"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San Diego: Elsevier, 2012), 1-54.

4) Martie G. Haselton and David M. Buss, "Error management theory: a new perspective on biases in cross-sex mind reading," 81.

5) Jesse Graham et al., "Moral foundations theory: The pragmatic validity of moral pluralism," 55-130; Paul Rozin, Laura Lowery, Sumio Imada and Jonathan Haidt, "The CAD triad hypothesis: a mapping between three moral emotions (contempt, anger, disgust) and three moral codes (community, autonomy, div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4) (1999): 574-586; Pascale Sophie Russell and Roger Giner-Sorolla, "Moral anger, but not moral disgust, responds to intentionality," *Emotion* 11(2) (2011): 233-240.

6) Charles S. Carver and Eddie Harmon-Jones, "Anger is an approach-related affect: evidence and implic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35(2) (2009): 183; Belle Derks, Daan Scheepers and Naomi Ellemers, *Neuroscience of Prejudice and Intergroup Relations* (New York: Psychology Press, 2013); Catherine Molho, Joshua M. Tybur, Ezgi Güler, Daniel Balliet and Wilhelm Hofmann, "Disgust and anger relate to different aggressive responses to moral violations," *Psychological Science* 28(5) (2017): 609-619.

7) Mark Schaller and Justin H. Park, "The behavioral immune system (and why it matter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2) (2011): 99-103.

문화적 도덕 가치에 따른 즉각적 감정 반응을 경험하고, 이후에 이를 정당화하는 사후 추론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판단을 합리화한다.[8)]

기능적 유연성 가설에 의하면, 인지 및 감정 반응이 다양한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개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혐오 반응의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9)]

인지적 부산물 가설에 의하면, 범주화와 일반화 등의 다른 적응적 기능을 지닌 인지적 기전이 사회적 혐오나 편견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해로운 물질을 피하려는 범주적 인지 경향이 해롭지 않은 사회적 집단을 향한 혐오를 유발한다는 주장이다.[10)]

아마 인간의 사회적 편견과 혐오는 이상의 여러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실제 세계에서는 아주 다양한 편견과 혐오 반응이 나타나며, 즉 이러한 반응이 서로 다른 생태적 압력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로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혐오 민감도와 주로 발달적 사회화를 거치는 혐오 자극원 목록은 생태적 환경의 여러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를 조건적 보정 가설(facultative calibration hypothesis)이라고 한다.[11)]

그러나 혐오의 개체차는 단지 유전적 소인과 발달적 자극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한 개인에서도 사회생태적 자극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비친족 협력을 통해 높은 이득을 얻는 사회적 종이다. 따라서 높은 혐오 수준을 가진 개체는 다른 개체와의 협력 빈도 및 강도가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적합도 상의 손해를 입는다. 또한, 혐오는 종종 외집단이나 하위집단을 향하는데,[12)] 실제로는 이들과의 교류도 적합도 향상을 촉발하는 사회적 분업을

---

8) Jonathan Haidt,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814.

9) Todd D. Nelson,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10) Megan Oaten et al., “Disgust as a disease-avoidance mechanism,” 303-321.

11) Christopher R. von Rueden et al., “Adaptive personality calibration in a human society: effects of embodied capital on prosocial traits,” *Behavioral Ecology* 26(4) (2015): 1071-1082; Brendan P. Zietsch, “Individual differences as the output of evolved calibration mechanisms: does the theory make sense in view of empirical observation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7 (2016): 71-75.

추동하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수준의 혐오 반응을 보이는 것은 개체 수준에서 부적응적인 형질이다.[13)]

따라서 다른 개체나 집단에 관한 혐오 수준은 해당 대상이 암시하는 잠재적 위협 혹은 잠재적 협력 이득의 트레이드-오프에 따라 조절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대상이 제공하는 신호 자극이 위협 혹은 협력에 관한 잠재적 속성과 연결되면, 신호 자극에 따라 혐오 혹은 호의의 반응이 추동될 수 있다.

그런데 종교는 어떨까? 일반적으로 종교는 종종 사람들을 덜 혐오하도록 만들고, 더 관대하게 만든다고 간주된다.[14)]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감시되며, 악한 생각이나 행동은 처벌받는다는 믿음이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한다는 주장이다.[15)] 특히 반복 게임이나 평판 전달 등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다른 기전이 작동하기 어려운 대규모 집단에서 초자연적 존재에 관한 종교적 관행이 협력 행동을 추동한다고 가정한다.[16)]

초기에는 이러한 종교의 친사회적 행동 추동에 관한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가 주로 개념적 제안이나 경험적 증거 혹은 설문 조사 등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개념 제안이나 경험적 증거는 연구자의 편향을 제거하기 어렵다. 또한, 설

---

12) Joshua M. Ackerman et al., “The behavioral immune system: Current concerns and future direction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2(2) (2018): e12371; Robert Kurzban et al., “Can race be erased? Coalitional computation and social categoriz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98(26) (2001): 15387-15392.

13) 박한선, 「생존: 인간의 행동은 감염병에 어떻게 적응했는가?」, 『휴먼 디자인: 진화가 빚어낸 인간의 뇌, 마음, 행동, 그리고 사회와 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14) Arthur C. Brooks, “Religious faith and charitable giving,” *Policy Review* 121 (2003): 39; James L. Furrow et al., “Religion and positive youth development: Identity, meaning, and prosocial concern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8(1) (2004): 17-26; Michael E. McCullough and Everett L. Worthington Jr., “Religion and the forgiving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67(6) (1999): 1141-1164.

15) Dominic Johnson and Oliver Krüger, “The good of wrath: Supernatural punishment an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Political theology* 5(2) (2004): 159-176; Ara Norenzayan, *Big Gods: How Religion Transformed Cooperation and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16) Dominic Johnson, “Why God is the best punisher,” *Religion, Brain & Behavior* 1(1) (2011): 77-84.

문 조사는 이른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을 유발할 수 있다.[17] 이러한 연구 설계상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에게 종교성을 환기하는 심리적 점화(priming) 기법이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다.[18]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심리적 종교 점화를 통해서 종교 기반의 친사회적 정서나 행동이 추동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회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큰 신(Big Gods or major deities), 즉 전면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자연적 감시자를 전제하는 종교적 전통과 작은 신(minor deities), 즉 제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능 신이나 정령 등을 강조하는 종교적 전통의 차이일 수 있다.[19]

예를 들어 오스트로네시아 문화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높은 등급의 도덕신(moralizing high gods)은 사회의 정치적 복잡성과 큰 관련이 없었고, 오히려 초자연적 처벌(supernatural punishment)에 관한 개념이 정치적 복잡성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20] 또한, 신과 인간의 거시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보다 사람 간의 미시적인 사회적 윤리를 강조하는 동아시아 사회에서도 종교 점화의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일본과 몽골에서 진행된 연구는 이러한 추정을 지지

---

17) Robert J. Fisher, "Social desirability bias and the validity of indirect question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2) (1993): 303-315.

18) Onurcan Yilmaz, and Hasan G. Bahçekapili, "Supernatural and secular monitors promote human cooperation only if they remind of punishment,"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7(1) (2016): 79-84; Kristin Laurin et al., "Outsourcing punishment to God: Beliefs in divine control reduce earthly punishment,"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279(1741) (2012): 3272-3281; Will M. Gervais and Ara Norenzayan, "Like a camera in the sky? Thinking about God increases public self-awareness and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1) (2012): 298-302.

19) Ara Norenzayan, *Big Gods: How Religion Transformed Cooperation and Conflict*; Benjamin Grant Purzycki et al., "Moralistic gods, supernatural punishment and the expansion of human sociality," *Nature* 530(7590) (2016): 327-330; Joseph Watts et al., "Clarity and causality needed in claims about Big God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9 (2016): e27.

20) Joseph Watts et al., "Broad supernatural punishment but not moralizing high gods precede the evolution of political complexity in Austronesia,"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282(1804) (2015).

하는데, 심지어 세속 규범을 점화한 집단에서도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21)]

현대 한국 사회의 종교적 양상은 다층적이고 혼재적이므로 종교적 점화나 세속 규범의 점화가 친사회성 정서 및 행동 변화와 관련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일부 연구자는 동아시아의 거대 사회는 서구 사회와 달리 큰 신의 존재 없이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 간의 상호 기대와 체면, 수치, 조화, 자성 등의 가치가 초자연적 감시의 심리적 효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22)]

2021년 5월 18일에 한국 갤럽이 공개한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에 따르면, 한국의 종교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40%이며,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한 종교들은 개신교(17%), 불교(16%), 가톨릭(6%)이다.[23)] 한국 사회에 혼재된 종교적 지형을 고려하면, 종교성이 반드시 외집단이나 소수집단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추동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어렵다.[24)]

게다가 전술한 인지적 부산물 가설은 사회적 혐오의 진화뿐 아니라 종교적 사고나 행동 등에 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의 행위자 탐지 모듈이나 지향성 탐지 모듈이 신 개념이나 초자연적 현상의 계시적 관념을 유도한다는 것이다.[25)]

---

21) Sanae Miyatake and Masataka Higuchi, “Does religious priming increase the prosocial behaviour of a Japanese sample in an anonymous economic gam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1) (2017): 54-59; Renatas Berniūnas et al., “Between Karma and Buddha: Prosocial behavior among Mongolians in an anonymous economic game,”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30(2) (2020): 142-160.

22) Einar Thomassen, “Are gods really moral monitors? Some comments on Ara Norenzayan's Big Gods by a historian of religions,” *Religion* 44(4) (2014): 667-673; Hagop Sarkissian, “Supernatural, social, and self-monitoring in the scaling-up of Chinese civilization,” *Religion, Brain & Behavior* 5(4) (2015): 323-327.

23)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 종교 현황」, 2021년 5월 14일, 『갤럽리포트』, 한국갤럽, 2021.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24) 구형찬, 「인지종교학의 관점에서 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종교」, 『종교연구』 82(1) (2022): 9-36.

25) Edward Slingerland and Joseph Bulbulia, “Introductory essay: Evolutionary science and the study of religion,” *Religion* 41(3) (2011): 307-328; Fraser Watts and Léon P. Turner, *Evolution, Religion, and Cognitive Science: Critical and Constructive Essays* (Oxford:

만약 종교의 인지적 부산물 가설이 옳다면, 종교성이 친사회적 적응 형질로 작동하여 진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복잡성 수준과 무관하게 횡문화적 보편성을 보이는 종교성, 그리고 종교성 수준이 친사회성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 심지어 역사적으로 일부 종교에서 편견과 배제, 혐오와 차별 등의 반사회적 교리나 관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이유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26]

아직까지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혐오와 종교성의 진화인류학적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전술한 대로 한국인의 종교 분포는 약 절반이 무종교이며, 그 외의 대부분을 개신교, 가톨릭, 불교가 분점하고 있다.[27] 그러나 유교식 제사를 지내는 인구가 2006년 조사에서는 80%에 육박했고, 2014년 조사에서도 70%가 넘는 등 유교적 전통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28]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인지, 정서, 행동 복합체로서 사회적 혐오와 종교문화의 관련성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다.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종교 점화가 독재자 게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발표된 바 있으나,[29] 사회적 혐오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혐오와 종교문화의 상호 관련성을 탐구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종교적 규범이 종교인들의 사회적 혐오 수준을 변화시키는 조절 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한국의 개신교, 불교,

---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ascal Boyer, *Religion Explained: The Evolutionary Origins of Religious Thought* (UK: Hachette, 2007).

26) Joseph Henrich, “The evolution of costly displays, cooperation and religion: Credibility enhancing displays and their implications for cultural evolution,”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0(4) (2009): 244-260; Jonathan A. Lanman, “The importance of religious displays for belief acquisition and seculariz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Religion* 27(1) (2012): 49-65.

27) 이동한, 「2021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 『여론 속의 여론』, 한국리서치, 2021. https://hrcopinion.co.kr/archives/20186.

28) 장덕현, 「2014년 한국인의 설 명절 풍경」, 『갤럽리포트』, 한국갤럽, 2014.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521.

29) 배희정, 「한국인구집단에서 종교 점화가 독재자게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1).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혐오의 수준이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성에 의해 조절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온라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종교를 가진 한국인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종교적 규범을 점화했을 때의 혐오 수준을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또한, 세속적 규범을 점화했을 때의 혐오 수준도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비모수 분산분석(nonparametric analysis of variance) 등의 통계 처리를 통해 세 집단을 모두 비교하였다.

Ⅱ.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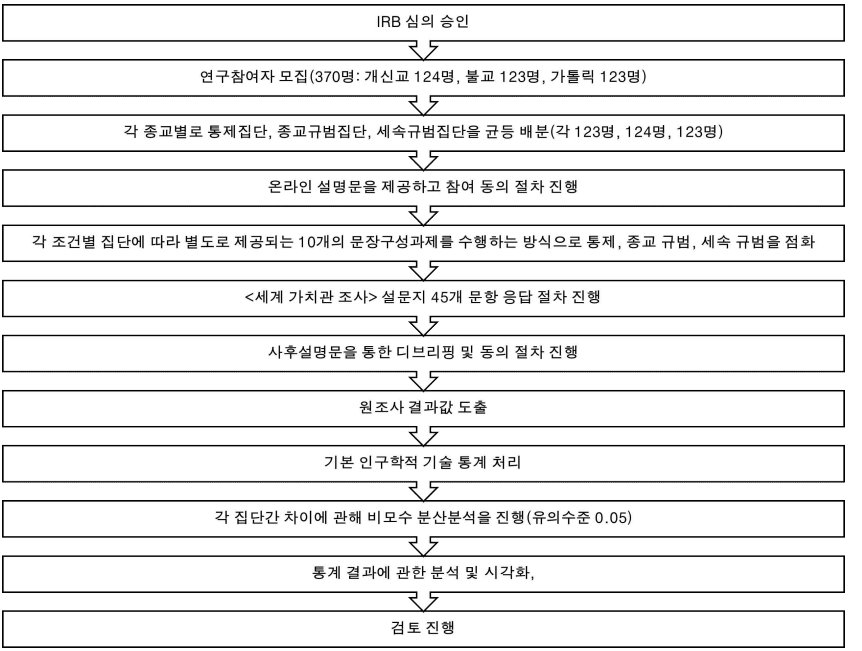
1. 연구의 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종교인들의 사회적 혐오 수준이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의 규범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온라인 실험을 설계했다. 실험의 주요 목표는 종교 신자에게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으로 억제하거나 자극하지 않더라도, 심리학적 점화 기법을 통해 소속 종교의 규범을 환기하는 진술에 노출되기만 해도 사회적 혐오의 수준이 변하는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세속의 규범을 점화한 집단을 비교군으로, 규범을 점화하지 않은 통제 집단을 대조군으로 설정했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되었다(그림 1). 연구에 관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였고(IRB No. 2108/004-008),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설문 패널을 이용하여 370명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대상 패널은 무종교인을 제외한 개신교, 불교, 가톨릭 교인으로 균등 할당하였고, 각 집단의 성별과 연령, 지역도 모집단 비율에 따라 균등 할당하였다. 전체 패널을 통제 집단과 종교 규범 집단, 세속 규범 집단으로 나누어 균등 배정하였다. 온라인 설명문을 통해 연구 참여 동의를 받고, 조건별 집단에 할당된 10개의 문장구성과제를 통해 종교 규범과 세속 규범을 점화하였다. 점화 이후 즉시 약 15분에 걸쳐서

<세계 가치관 조사>의 설문지 45개 문항에 관한 응답 결과를 수집하였다. 설문 종료 후 연구에 관한 사후 디브리핑을 진행하고 다시 응답 결과에 관한 연구 진행 동의를 획득하였다. 조사 결과의 원자료 값을 분석하여 인구통계학적 기술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집단 간 비교를 위해 비모수 분산분석을 시행하여 유의수준(<.05)에 따라 유의한 통계적 차이 여부를 검정하였다. 각 연구 단계와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연구 진행 절차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한민국 내 주요 종교의 신자다. 전술한 대로 한국 사회의 종교적 정체성은 다층위적 복합성을 보이지만, 연구 진행을 위해서 자기 선언

(self-declaration)에 기반하여 가장 높은 분율을 보이는 한국 사회의 주요 세 종교를 선정하였다.[30] 자기 선언은 사회적 기대나 압력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지만,[31] 다종교 사회인 한국 집단에서는 그러한 왜곡 응답이 낮을 것으로 간주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한 종교들은 개신교(17%), 불교(16%), 가톨릭(6%)이다.[32] 위의 세 종교에서 총 370명을 '마크로밀 엠브레인(https://embrain.com/)'의 온라인 패널을 통해 모집했다.

3. 심리적 점화와 설문 진행

연구에 동의한 참여자는 <문장구성과제(sentence composition tasks)>와 <세계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라는 두 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된 온라인 연구에 참여하였다.

<문장구성과제>는 특정 단어를 포함한 문장을 구성하도록 하여 피험자에게 무의식적 점화를 유발하는 방법이다. 참여자는 해당 주제에 몰입하고, 무의식 수준에서 해당 점화 자극이 암시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33]

본 연구에서는 통제 집단, 세속 규범 집단, 종교 규범 집단으로 구분하되 집단마다 개신교, 불교, 가톨릭 신자를 40명씩 배정했으며, 집단별로 준비된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단어 유창성 과제'라고 소개된 10개의 문장구성과제를 수행했는데, 문항마다 뒤섞여 제시되는 5개의 어절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색한 어절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어절을 재배치하여 적절한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문장구성과제를 통한 점화 기법은 관련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34]

---

30) Peter C. Hill and Ralph W Hood, *Measures of Religiosity* (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 1999).

31) Richard L. Gorsuch, "Measurement: The boon and bane of investigating religion," *American Psychologist* 39(3) (1984): 228.

32)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 종교 현황」.

33) John A. Bargh, "What have we been priming all these years? On the development, mechanisms, and ecology of nonconscious social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6(2) (2006): 147-168.

통제 집단은 중립적인 10개의 문장을, 세속 규범 집단은 통제 집단과 같은 6개의 문장과 세속의 규범을 환기하는 4개 문장을, 종교 규범 집단은 통제 집단과 같은 6개의 문장과 소속 종교의 규범을 환기하는 4개의 문장을 완성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참여자에게 명시적 수준에서 통사적 구조를 맞추는 작업에 집중하도록 하되, 암묵적 수준에서 종교적 개념을 내재화시켜 종교적 심리 모듈을 다시 상기시키는 이중 점화를 진행하였다.[35]

참여자는 문장구성과제를 완료한 후에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 WVS)> 설문지 45개 문항에 응답했다.[36] WVS의 문항 수는 라운드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200문항의 설문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7차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 wave 7, 2017년~2020년)의 WVS-7 설문지 1번부터 45번까지 문항(사회 가치, 태도, 편견 부문)을 활용하였다(표 1). 5점 이하의 리커트 척도가 적용된 문항은 최대 7점 척도로 수정하여 세분된 응답을 수집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원본 설문지와 코드북은 연구를 위해 공개되어 있다.[37]

---

34) 배희정, 「한국인구집단에서 종교 점화가 독재자게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Thomas K. Srull and Robert S. Wyer, “The role of category accessibi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information about persons: Some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0) (1979): 1660-1672.

35) 문장구성과제는 참여자들에게 문장의 내용보다는 통사적 구조에 더 집중하게 하는 암묵적(implicit) 점화 기법의 일종이다. 종교적 점화 방법으로서 문장구성과제는 종교적 신앙 여부를 묻거나 종교 문헌을 읽도록 하는 외현적(explicit) 점화 기법과 비교하면 참여자들이 실험의 의도에 맞춰 응답을 수정하는 ‘요구특성 문제’의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문장구성과제를 활용한 심리학적 선행연구가 적지 않지만, 종교 점화에 관하여 한국어 사용자에게도 충분한 효과성과 유효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연구가 더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6) Ronald Inglehart et al., *World Values Survey: Round Six - Country-Pooled Datafile Version* (Madrid: JD Systems Institute 12, 2014).

37)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WVS-7 QUESTIONNAIRE,”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May 14, 2023.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Contents.jsp.

<표 1> WVS-7 설문지 일부 예시

다음에 제시되는 항목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5개 선택지 중 하나로 표시해주세요.
①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중립 ④중요한 편이다 ⑤매우 중요하다
Q1. 가족 Q2. 친구 Q3. 여가 시간 Q4. 정치 Q5. 일 Q6. 종교
다음 사람들을 이웃으로 두기 싫은 정도를 다음 7개 선택지 중 하나로 표시해주세요.
①절대로 싫다 ②싫다 ③싫은 편이다 ④모르겠다 ⑤싫지 않은 편이다 ⑥싫지 않다 ⑦전혀 싫지 않다
Q18. 약물 중독자 Q19. 다른 인종 Q20. 에이즈 환자 Q21. 이민자/외국인 노동자 Q22. 동성애자 Q23.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Q24.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Q25. 혼외 동거 커플 Q26.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

또한, 본 연구는 문장구성과제의 점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눈가림 법을 활용했다. 연구 참여 단계에서 본 연구를 <단어 유창성과 사회적 가치 판단 성향의 관계 연구>라고 소개하고, 감염병 상황의 비대면 상호작용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시각적 언어 처리의 경향과 가치 판단 성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라

고 안내했다. 설문 조사까지 종료된 후에는 사후 설명문을 통해 본래의 연구 목적, 참여 조건, 문장구성과제의 목적을 포함해 본 연구가 <종교 규범 점화가 종교인들의 사회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임을 디브리핑하고 연구를 계속 참여할지에 관한 동의 및 조사 결과의 연구 활용 여부에 관한 최종 동의를 다시 득하였다.

4. 데이터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 판단 성향 조사>로 제시한 45개 문항 중에서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측정하기 위한 9개 문항의 응답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9개 범주(약물 중독자, 다른 인종, 에이즈 환자, 이민자/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혼외 동거 커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의 사람들을 얼마나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지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전혀 싫지 않다, 싫지 않다, 싫지 않은 편이다, 모르겠다, 싫은 편이다, 싫다, 절대로 싫다)로 응답했다.

각 집단 간 사회적 편견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통제 집단과 세속 규범 집단, 통제 집단과 종교 규범 집단, 세속 규범 집단과 종교 규범 집단을 각각 비교하여, 종교 규범의 심리적 점화가 사회적 소수자 또는 외집단에 대한 사회적 혐오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크루스칼-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38]

먼저 아무런 점화도 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서 개신교, 불교, 가톨릭 신자들 간 사회적 혐오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 통제 집단, 세속 규범 집단, 종교 규범 집단의 사회적 혐오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종교 종류에 따라 심리학적 점화가 사회적 혐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혐오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각각 Cohen's d 값을 이용하여 효

38)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은 세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비모수적으로 검정하는 방법으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에 필요한 종속 변수의 정규 분포 가정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다.

과 크기를 확인하였다.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은 통계분석 소프트웨어 SPSS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정보

연구 참여자의 남녀 성비는 남성(31.6%)과 여성(68.4%)으로, 한국의 종교 신자 가운데 남성 대비 여성이 두 배 정도 많은 현실이 적절히 반영되었다. 연령별 분포는 온라인 패널의 특성상 20대(23.8%), 30대(31.4%), 40대(27.0%)가 많았다(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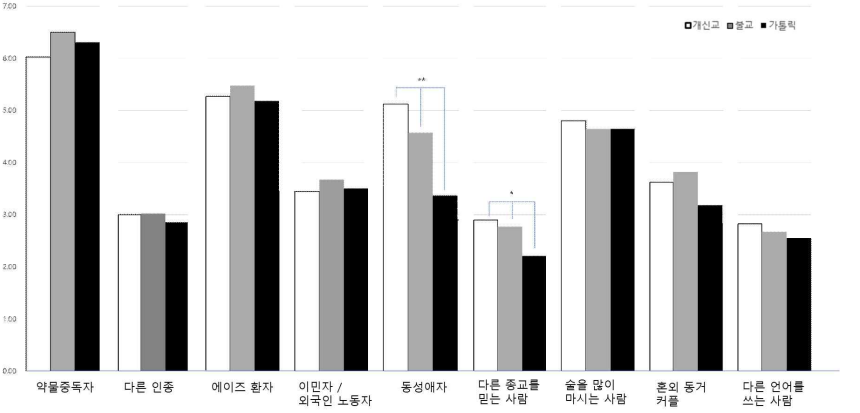
<표 2>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370	100.0
성별	남성	117	31.6
	여성	253	68.4
연령별	20대	88	23.8
	30대	116	31.4
	40대	100	27.0
	50대	46	12.4
	60대	20	5.4
종교	개신교	124	33.5
	불교	123	33.2
	가톨릭(천주교)	123	33.2
점화	통제집단	123	33.2
	세속규범집단	123	33.2
	종교규범집단	124	33.5

2. 통제 집단의 사회적 혐오 수준: 종교 간 비교

종교에 따라 기본적으로 사회적 혐오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속 규범이나 종교 규범 점화를 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서 개신교, 불교, 가톨릭 신자들 간 사회적 혐오의 차이가 있는지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으로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약물 중독자, 다른 인종, 에이즈 환자, 이민자/외국인 노동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혼외 동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에 대한 혐오는 종교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성애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 대한 혐오는 종교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는 개신교에서 가장 높았고(평균 5.13 점), 가톨릭에서 가장 낮았다(평균 3.37 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 대한 혐오 역시 마찬가지로 개신교에서 가장 높았고(평균 2.90 점), 가톨릭에서 가장 낮았다(평균 2.21 점)(그림 2, 표 3).

<그림 2> 통제 집단에서 종교 간 사회적 혐오의 차이[1)]



1) * p <0.05, ** p <0.01

<표 3> 통제 집단에서 종교 간 사회적 혐오의 차이[1), 2)]

구분		평균	*SD*	*p*
약물중독자	개신교	6.03	1.10	0.16
	불교	6.50	0.68	
	가톨릭	6.30	0.74	
다른 인종	개신교	3.00	1.50	0.75
	불교	3.03	1.12	
	가톨릭	2.86	1.36	
에이즈 환자	개신교	5.28	1.47	0.73
	불교	5.48	1.34	
	가톨릭	5.19	1.55	
이민자 / 외국인 노동자	개신교	3.45	1.55	0.82
	불교	3.68	1.38	
	가톨릭	3.51	1.47	
동성애자	개신교	5.13	2.04	$p<0.001^{**}$
	불교	4.58	1.66	
	가톨릭	3.37	1.63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개신교	2.90	1.57	0.02^{*}
	불교	2.78	0.97	
	가톨릭	2.21	0.97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개신교	4.80	1.51	0.89
	불교	4.65	1.53	
	가톨릭	4.65	1.65	
혼외 동거 커플	개신교	3.63	1.90	0.22
	불교	3.83	1.52	
	가톨릭	3.19	1.48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	개신교	2.83	1.62	0.72
	불교	2.68	1.05	
	가톨릭	2.56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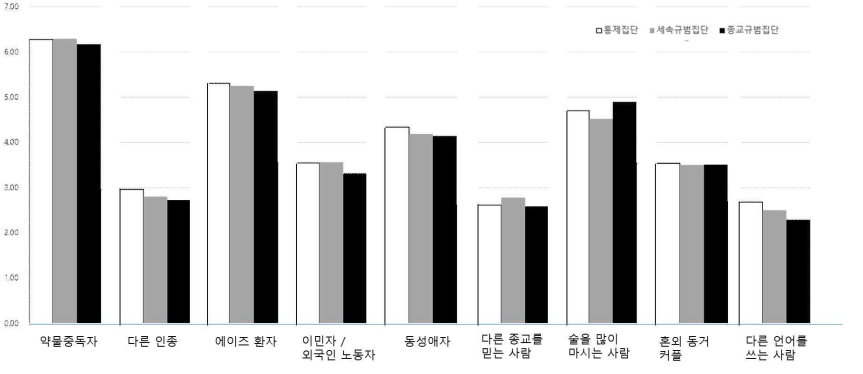
1)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을 사용하였다.

2) * p <0.05, ** p <0.01

3. 점화 집단 간 사회적 혐오 수준 차이 분석

종교 규범이나 세속 규범의 심리적 점화가 사회적 혐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통제 집단, 세속 규범 집단, 종교 규범 집단의 사회적 혐오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모든 종류의 사회적 소수집단, 즉 약물 중독자, 다른 인종, 에이즈 환자, 이민자/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혼외 동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에 대한 혐오 수준은 통제 집단과 세속 규범 집단, 종교 규범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표 4).

<그림 3> 점화 집단 간 사회적 혐오 수준 차이



<표 4> 점화 집단 간 사회적 혐오 수준 차이[1)]

구분		평균	*SD*	*p*
약물중독자	통제집단	6.28	0.87	0.66
	세속규범집단	6.29	0.89	
	종교규범집단	6.17	0.99	
다른 인종	통제집단	2.96	1.33	0.30
	세속규범집단	2.80	1.15	
	종교규범집단	2.73	1.19	
에이즈 환자	통제집단	5.31	1.45	0.66
	세속규범집단	5.25	1.50	
	종교규범집단	5.14	1.49	
이민자 / 외국인 노동자	통제집단	3.54	1.46	0.19
	세속규범집단	3.57	1.24	
	종교규범집단	3.31	1.33	
동성애자	통제집단	4.33	1.92	0.67
	세속규범집단	4.19	1.83	
	종교규범집단	4.15	1.80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통제집단	2.62	1.22	0.39
	세속규범집단	2.78	1.22	
	종교규범집단	2.59	1.18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통제집단	4.70	1.55	0.22
	세속규범집단	4.52	1.55	
	종교규범집단	4.90	1.42	
혼외 동거 커플	통제집단	3.54	1.65	0.99
	세속규범집단	3.50	1.64	
	종교규범집단	3.51	1.60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	통제집단	2.68	1.33	0.09
	세속규범집단	2.50	1.18	
	종교규범집단	2.29	1.01	

1)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을 사용하였다.

4. 종교별 점화 집단 간 사회적 혐오 수준의 차이

응답자를 개신교, 불교, 가톨릭 신자 집단으로 나누어 통제 집단, 세속 규범 집단, 종교 규범 집단의 사회적 혐오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개

신교, 불교, 가톨릭 집단 모두에서 통제 집단, 세속 규범 집단, 종교 규범 집단 간 혐오 수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개신교 신자들만을 따로 분석한 결과 각 대상에 대한 혐오 수준은 통제 집단과 세속 규범 집단, 종교 규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5).

<표 5> 개신교 신자에서 점화 집단 간 사회적 혐오 수준 차이[1)]

구분		평균	*SD*	*p*
약물중독자	통제집단	6.03	1.10	0.90
	세속규범집단	6.12	1.02	
	종교규범집단	6.07	0.89	
다른 인종	통제집단	3.00	1.50	0.65
	세속규범집단	2.76	1.21	
	종교규범집단	2.76	1.21	
에이즈 환자	통제집단	5.28	1.47	0.94
	세속규범집단	5.33	1.48	
	종교규범집단	5.19	1.58	
이민자 / 외국인 노동자	통제집단	3.45	1.55	0.51
	세속규범집단	3.69	1.32	
	종교규범집단	3.36	1.30	
동성애자	통제집단	5.13	2.04	0.11
	세속규범집단	4.36	1.91	
	종교규범집단	4.83	1.51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통제집단	2.90	1.57	0.72
	세속규범집단	3.02	1.46	
	종교규범집단	2.71	1.20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통제집단	4.80	1.51	0.42
	세속규범집단	4.55	1.60	
	종교규범집단	5.05	1.27	
혼외 동거 커플	통제집단	3.63	1.90	0.97
	세속규범집단	3.60	1.86	
	종교규범집단	3.60	1.48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	통제집단	2.83	1.62	0.22
	세속규범집단	2.71	1.45	
	종교규범집단	2.24	1.03	

1)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을 사용하였다.

불교 신자들만을 따로 분석한 결과 각 집단에 대한 혐오 수준은 통제 집단, 세속 규범 집단, 종교 규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6).

<표 6> 불교 신자에서 점화 집단 간 사회적 혐오 수준 차이[1)]

구분		평균	*SD*	*p*
약물중독자	통제집단	6.50	0.68	0.33
	세속규범집단	6.29	0.84	
	종교규범집단	6.10	1.12	
다른 인종	통제집단	3.03	1.12	0.56
	세속규범집단	2.73	0.98	
	종교규범집단	2.86	1.32	
에이즈 환자	통제집단	5.48	1.34	0.28
	세속규범집단	5.12	1.55	
	종교규범집단	4.93	1.49	
이민자 / 외국인 노동자	통제집단	3.68	1.38	0.55
	세속규범집단	3.39	1.16	
	종교규범집단	3.43	1.40	
동성애자	통제집단	4.58	1.66	0.10
	세속규범집단	4.12	1.83	
	종교규범집단	3.71	1.90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통제집단	2.78	0.97	0.84
	세속규범집단	2.71	0.96	
	종교규범집단	2.76	1.28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통제집단	4.65	1.53	0.64
	세속규범집단	4.73	1.66	
	종교규범집단	4.98	1.46	
혼외 동거 커플	통제집단	3.83	1.52	0.14
	세속규범집단	3.10	1.30	
	종교규범집단	3.48	1.61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	통제집단	2.68	1.05	0.34
	세속규범집단	2.34	0.91	
	종교규범집단	2.52	1.04	

1)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을 사용하였다.

가톨릭 신자들만을 따로 분석한 결과도 역시 각 집단에 대한 혐오 수준은 통제 집단과 세속 규범 집단, 종교 규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7).

<표 7> 가톨릭 신자에서 점화 집단 간 사회적 혐오 수준 차이[1)]

구분		평균	*SD*	*p*
약물중독자	통제집단	6.30	0.74	0.38
	세속규범집단	6.48	0.78	
	종교규범집단	6.35	0.92	
다른 인종	통제집단	2.86	1.36	0.45
	세속규범집단	2.93	1.27	
	종교규범집단	2.55	1.04	
에이즈 환자	통제집단	5.19	1.55	0.97
	세속규범집단	5.30	1.49	
	종교규범집단	5.30	1.40	
이민자 / 외국인 노동자	통제집단	3.51	1.47	0.25
	세속규범집단	3.63	1.25	
	종교규범집단	3.15	1.29	
동성애자	통제집단	3.37	1.63	0.20
	세속규범집단	4.08	1.77	
	종교규범집단	3.88	1.80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통제집단	2.21	0.97	0.29
	세속규범집단	2.60	1.19	
	종교규범집단	2.28	0.99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통제집단	4.65	1.65	0.40
	세속규범집단	4.28	1.40	
	종교규범집단	4.65	1.55	
혼외 동거 커플	통제집단	3.19	1.48	0.23
	세속규범집단	3.80	1.67	
	종교규범집단	3.45	1.74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	통제집단	2.56	1.30	0.24
	세속규범집단	2.45	1.11	
	종교규범집단	2.10	0.93	

1)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을 사용하였다.

추가로 통제 집단과 세속 규범 집단, 통제 집단과 종교 규범 집단, 세속 규범 집단과 종교 규범 집단의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각각 Cohen's d 값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를 확인하였다(표 8). 결과적으로 통제 집단과 세속 규범 집단, 통제 집단과 종교 규범 집단, 세속 규범 집단과 종교 규범 집단의 집단 간 차이의 효과 크기는 대부분 0.2 이하의 값을 보여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작은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다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에 대한 혐오 수준은 집단 간 차이가 약간 더 컸으나 이 역시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 판단의 일반적 기준이 되는 0.5 이하의 값으로 여전히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신교, 불교, 가톨릭 신자를 따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에도 대체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유일하게 불교 신자 집단에서 혼외 동거 커플에 대한 통제 집단과 세속 규범 집단 간 차이의 효과 크기가 -0.52로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가 있었지만, 앞서 비모수 평균 비교 분산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통계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집단 간 평균 차이에 관한 효과 크기[1)]

비교 집단	약물중독자	다른 인종	에이즈 환자	이민자 / 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혼외 동거 커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
통제집단 vs 세속규범집단	0.02	-0.12	-0.04	0.02	-0.08	0.13	-0.12	-0.02	-0.14
통제집단 vs 종교규범집단	-0.12	-0.19	-0.12	-0.16	-0.10	-0.02	0.13	-0.02	-0.33
세속규범집단 vs 종교규범집단	-0.13	-0.07	-0.08	-0.20	-0.02	-0.16	0.25	0.01	-0.19
개신교									
통제집단 vs 세속규범집단	0.09	-0.18	0.04	0.17	-0.39	0.08	-0.16	-0.02	-0.07
통제집단 vs 종교규범집단	0.05	-0.18	-0.06	-0.06	-0.16	-0.13	0.18	-0.02	-0.44
세속규범집단 vs 종교규범집단	-0.05	0.00	-0.09	-0.25	0.28	-0.23	0.35	0.00	-0.38
불교									
통제집단 vs 세속규범집단	-0.27	-0.28	-0.24	-0.22	-0.26	-0.07	0.05	-0.52	-0.34
통제집단 vs 종교규범집단	-0.43	-0.14	-0.39	-0.18	-0.48	-0.01	0.22	-0.22	-0.14
세속규범집단 vs 종교규범집단	-0.20	0.11	-0.13	0.03	-0.22	0.05	0.16	0.26	0.19
기독교									
통제집단 vs 세속규범집단	0.23	0.05	0.08	0.08	0.41	0.36	-0.25	0.39	-0.09
통제집단 vs 종교규범집단	0.06	-0.26	0.08	-0.26	0.29	0.07	-0.001	0.16	-0.40
세속규범집단 vs 종교규범집단	-0.15	-0.32	0.00	-0.37	-0.11	-0.30	0.25	-0.21	-0.34

1) 집단 간 평균 차이의 효과 크기는 Cohen's d값을 사용하였다.

Ⅳ. 논의

1. 연구 결과의 함의

본 연구는 진화인지적 관점에서 사회적 혐오의 기원과 기전만이 아니라 종교적 사고와 행동의 기원과 기전이 서로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인간은 고도의 사회성을 지닌 종이다. 호혜적 협력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거대 규모의 집단 속에서도 다양한 협력 행동을 한다.[39]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사회성에는 강력한 내집단 선호 편향과 외집단에 대한 강력한 혐오와 편견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40]

'종교적 친사회성 가설(Religious Prosociality Hypothesis, RPH)'은 종교적 믿음이 인간 특유의 사회성 형성에 이바지했다고 본다. 종교는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고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며, 공동체 의식을 통해 도덕적 행동을 강화한다는 주장이다.[41] 특히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과 도덕적 규범을 통해 위반자와 무임승차자를 통제하고 타인을 더 관대하게 대하도록 가르치며 의례적 규범을 통해 고도의 사회적 협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42]

그러나 전통적인 종교적 규범에서 이방인, 배교자, 환자, 동성애자, 여성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특정 종교와

---

39) Dominic Johnson, "Why God is the best punisher."

40) Mina Cikara et al., "Us and them: Intergroup failures of empath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3) (2011): 149-153.

41) Ryan McKay and Harvey Whitehouse, "Religion and mor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41(2) (2015): 447.

42) Arthur C. Brooks, "Religious faith and charitable giving," 39; Michael E. McCullough and Everett L. Worthington Jr., "Religion and the forgiving personality," 1141-1164; Dominic Johnson and Oliver Krüger, "The good of wrath: Supernatural punishment an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Ara Norenzayan, *Big Gods: How Religion Transformed Cooperation and Conflict*; Dominic Johnson, "Why God is the best punisher."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혐오 이슈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회적 혐오와 종교의 관련성에 대한 더 면밀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43]

종교가 사회적 혐오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반대로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직관적 추정은 실증 연구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게다가 사회적 혐오는 단일한 현상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증후군이며, 종교적 사고와 행동도 아마도 다양한 인지 기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44] 따라서 종교를 단일한 독립변인으로 상정해 사회적 혐오와 인과적으로 결합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판적 논의를 토대로, 종교의 점화가 사회적 혐오 수준을 변화시키는지를 검증하고자 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종교문화가 지닌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실험을 설계함으로써 선행연구들과 차별화했다. 종교적 친사회성 가설에 기반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 서구 학계의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인간 행동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신에 대한 믿음을 심리적으로 점화한 후에 행동경제게임을 통해 협력 행동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45] 많은 연구에서 종교적 친사회성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일본, 몽골, 한국 등에서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46] 이는 종교적 사고와 행동의 문화적

---

43) Deborah L. Hall et al., “Why don’t we practice what we preach? A meta-analytic review of religious rac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4(1) (2010): 126-139; Megan K. Johnson et al., “Religiosity and prejudice revisited: In-group favoritism, out-group derogation, or both?”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4(2) (2012): 154.

44) Will M. Gervais, “Perceiving minds and gods: How mind perception enables, constrains, and is triggered by belief in god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8(4) (2013): 380-394.

45) Azim F. Shariff and Ara Norenzayan, “God is watching you: Priming God concepts increases prosocial behavior in an anonymous economic game,” *Psychological Science* 18(9) (2007): 803-809.

46) Sanae Miyatake and Masataka Higuchi. “Does religious priming increase the prosocial behaviour of a Japanese sample in an anonymous economic game?”; Renatas Berniūnas et al., “Between Karma and Buddha: Prosocial behavior among Mongolians in an anonymous economic game”; 배희정, 「한국인구집단에서 종교 점화가 독재자게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다양성과 다종교 사회의 특수성이 실험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종교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신교, 불교, 가톨릭 신자들이 자기 종교의 규범을 환기하는 진술을 접했을 때, 총 9개 영역에 대한 사회적 혐오 수준에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측정하고, 이를 세속 규범 집단 및 통제 집단과 비교할 수 있게 실험을 설계했다. 본 실험의 결과는 종교적 규범이 한국의 종교 신자들의 사회적 혐오 수준을 변화시키는 조절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종교 규범의 점화만이 아니라 세속 규범의 점화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 규범을 점화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서 개신교 신자들의 사회적 혐오의 평균이 다른 종교의 신자들에 비해 높게 나온 영역들은 있었지만, 점화의 효과는 미약했다.

결과적으로 초자연적 존재의 감시와 처벌을 상정하는 종교적 친사회성 가설은 횡문화적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종교의 인지적 측면과 적응적 측면이 별도로 진화했을 가능성을 진화인류학적 수준에서 인지적 부산물 가설과 유전자-문화 공진화 가설을 참조해 자세히 검토하여 비교종교학적 연구와 결합하는 더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 설계의 제한점

<문장구성과제>를 통한 점화 기법에 활용한 문항들은 관련 선행연구를 응용하되, 선행연구와 달리 한국의 다종교 상황을 반영해 개신교, 불교, 가톨릭을 구분한 종교 규범 문항을 새로 구성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문장구성과제> 기법을 사용해 종교 규범이나 세속 규범을 점화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뚜렷이 도출된 선행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취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한국어의 어순이나 문장 구성 과정이 영어보다 제한적이므로 충분한 점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장구성과제의 여러 단어가 점화를 일으킬 만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 종교 점화 연구의 적절성, 타당성에 관해서 점화 방법을 포함하는 검증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가치관 조사>를 활용한 설문은 제7차 세계 가치관 조사의 주요 설문 문항 290개 중에서 사회적 가치, 태도, 편견 등을 묻는 1번부터 45번까지의 문항을 제한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은 그중에서 타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 정도를 묻는 18번부터 26번까지의 9개 문항에 국한된다. 종교와 혐오에 관한 연구 문항으로 최적화되지 않았으므로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분석의 대상인 9개 영역은 한국 거주자에게 강력한 혐오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약물중독이나 에이즈 유병률이 낮고, 다른 인종이나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 등을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접하기 어렵다. 또한, 음주에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혼외 동거에 관한 사회적 터부로 실제 노출된 동거 커플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더해 타 종교인을 만나는 일은 한국 사회에서 일상적 사건이다. 반면에 타 언어 노출은 비교적 잦고, 타 언어 사용자에 관한 경험은 다른 영역에 비해 심리적 현저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타 언어 사용 집단에 대해서는 혐오 및 점화에 의한 효과가 일부 소집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가장 큰 효과 크기를 보였다.

WVS-7은 다양한 영역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는 다국적 장기 연구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종교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이끌 만한 것인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경험을 반영해 사회적 혐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현지화된 척도가 필요하다. 사회적 혐오와 친사회적 행동은 서로 완전히 상반된 특성을 뜻하지 않으므로, 연구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 참여자의 성비는 약 3:7 수준으로 한국의 종교 실정상 남성 참여자가 과대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30대와 40대 참여자가 가장 많이 포집되었으나, 한국 불교의 경우에는 60대나 70대 신자의 비율이 크게 높으므로 모집단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 사전 설명문 내용이 의도하지 않았던 교란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눈가림법을 적용했는데, 사전 설명문에서 '감염병 상황의 비대면 상호작용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시각적 언어 처리의 경향과 가치 판단 성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라고 안내했

다. 이때, '감염병'이라는 단어가 사회적 혐오 수준을 잠재적으로 높이는 쪽으로 점화 효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연구가 수행된 시기가 코로나 19 범유행 상황이라는 점에서 해당 내용이 연구 결과에 예측하지 못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47]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수행 시기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고 연구 절차 중에 전달되는 정보가 연구 내용에 미칠 수 있는 부대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V. 결론

종교와 사회적 혐오의 상관성은 한국의 종교현상을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체계적으로 수행된 실증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48] 본 연구는 진화인지적 관점에서 종교적 규범과 세속적 규범이 사회적 혐오에 대한 조절 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조사한 연구다. 한국의 개신교, 불교, 가톨릭 신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혐오 수준이 종교 규범 점화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조사하였고, 세속적 규범이 활성화되었을 때의 혐오 수준과 비교를 시도하였으며, 세 종교집단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종교적 규범과 세속적 규범 모두 사회적 혐오의 조절 변인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정확히 말해서 해당 규범의 점화가 세 종교 모두에서 사회적 혐오를 조절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종교가 사회적 혐오를 감소하는 친사회적 역할을 한다는 주류 가설이나 일부 원리주의적 종파가 한국 사회의 사회적 혐오를 조장한다는 근자의 대중적 견해를 모두 지지할 수 없었다. 또한, 집단별 점화 기법은 매우 낮은 수준의 효과 크기(Cohen's d)를 보였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가장 흔한 세 주요 종교의 사회적 혐오에 관한 수준 차이에 관한 대중적 추측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47) 박한선, 「생존: 인간의 행동은 감염병에 어떻게 적응했는가?」.

48) 구형찬, 「혐오-종교 공생에 대한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 『종교문화연구』 29 (2017): 1-24; 구형찬, 「혐오와 종교문화: 한국 개신교에 관한 소고」, 『종교문화비평』 33 (2018): 15-54.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아시아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존 여러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초자연적 감시자를 전제한 큰 신의 인지적 행동 조절 효과가 분명하지 않으며, 심지어 사회법적 세속 규범도 인지행동 상의 조절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49]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며, 연구의 제한점도 자세하게 다루었다.

사회적 혐오와 종교의 관련성에 관한 진화인지적 연구가 더 진전되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세계 종교는 교리적 규범의 수준에서 자비, 사랑, 평화를 지향하며 실제로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일부 종교 규범은 혐오와 편견을 옹호하는 신앙적 근거로 작동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외삽하면 일부 종교인의 사회적 혐오 행동은 종교의 명시적 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 수준의 진화적 심리 모듈에 의해 좌우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둘째, 사회적 혐오와 종교문화의 상호 관련성은 전 세계에서 지속해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극단적인 원리주의를 따르는 일부 종교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역사적 특수주의나 사회문화적 비교 연구에 따른 다양한 종교학적 분석이 시도되고 있으나, 보다 보편적 수준에서의 행동 기전에 관한 통합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복잡한 종교, 문화, 사회, 역사적 맥락을 반영한 실증적 연구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수행된 바 없어, 다른 문화의 유사 연구와 비교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향후 사회적 혐오와 종교성, 세속성 등에 관해 동아시아, 구체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교하게 설계한 경험적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사회적 혐오, 세속 규범, 종교 규범, 점화, 인지종교학, 진화인류학

원고접수일: 2023년 05월 14일

---

49) Sanae Miyatake and Masataka Higuchi. “Does religious priming increase the prosocial behaviour of a Japanese sample in an anonymous economic game?”; Renatas Berniūnas et al., “Between Karma and Buddha: Prosocial behavior among Mongolians in an anonymous economic game”; 배희정, 「한국인구집단에서 종교 점화가 독재자게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심사완료일: 2023년 06월 19일
게재확정일: 2023년 06월 26일

참고문헌

구형찬. 「혐오-종교 공생에 대한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 『종교문화연구』 29 (2017): 1-24.

_____. 「혐오와 종교문화: 한국 개신교에 관한 소고」. 『종교문화비평』 33 (2018): 15-54.

_____. 「인지종교학의 관점에서 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종교」. 『종교연구』 82(1) (2022): 9-36.

박한선. 「생존: 인간의 행동은 감염병에 어떻게 적응했는가?」. 『휴먼 디자인: 진화가 빚어낸 인간의 뇌, 마음, 행동, 그리고 사회와 문화』, 박순영 대표저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박한선·구형찬. 『감염병 인류』. 서울: 창비, 2022.

배희정. 「한국인구집단에서 종교 점화가 독재자게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1. https://hdl.handle.net/10371/175633.

이동한. 「2021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 『여론 속의 여론』. 한국리서치, 2021. https://hrcopinion.co.kr/archives/20186.

장덕현. 「2014년 한국인의 설 명절 풍경」. 『갤럽리포트』. 한국갤럽, 2014.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521.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 종교 현황」. 2021년 5월 14일. 『갤럽리포트』. 한국갤럽, 2021.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Allport, Gordon Willard, Kenneth Clark, and Thomas Pettigrew. *The Nature of Prejudice.* MA: Addison-Wesley, 1954.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WVS-7 QUESTIONNAIRE."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May 14, 2023.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Contents.jsp.

Bargh, John A. "What have we been priming all these years? On the development, mechanisms, and ecology of nonconscious social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6(2) (2006): 147-168.

Barrett, H. Clark, and Robert Kurzban. "Modularity in cognition: framing the debate." *Psychological Review* 113(3) (2006): 628.

Berniūnas, Renatas, Vilius Dranseika, and Delgermend Tserendamba. "Between Karma and Buddha: Prosocial behavior among Mongolians in an anonymous economic

game."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30(2) (2020): 142-160.

Boyer, Pascal. *Religion Explained: The Evolutionary Origins of Religious Thought*. UK: Hachette, 2007.

Brooks, Arthur C. "Religious faith and charitable giving." *Policy Review* 121 (2003): 39.

Carver, Charles S., and Eddie Harmon-Jones. "Anger is an approach-related affect: evidence and implic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35(2) (2009): 183.

Cikara, Mina, Emile G. Bruneau, and Rebecca R. Saxe. "Us and them: Intergroup failures of empath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3) (2011): 149-153.

Cottrell, Catherine A., and Steven L. Neuberg. "Different emotional reactions to different groups: a sociofunctional threat-based approach to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5) (2005): 770.

Derks, Belle, Daan Scheepers, and Naomi Ellemers. *Neuroscience of Prejudice and Intergroup Relations*. New York: Psychology Press, 2013.

Fisher, Robert J. "Social desirability bias and the validity of indirect question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2) (1993): 303-315.

Furrow, James L., Pamela Ebstyne King, and Krystal White. "Religion and positive youth development: Identity, meaning, and prosocial concern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8(1) (2004): 17-26.

Gervais, Will M. "Perceiving minds and gods: How mind perception enables, constrains, and is triggered by belief in god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8(4) (2013): 380-394.

Gervais, Will M., and Ara Norenzayan. "Like a camera in the sky? Thinking about God increases public self-awareness and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1) (2012): 298-302.

Gorsuch, Richard L. "Measurement: The boon and bane of investigating religion." *American Psychologist* 39(3) (1984): 228.

Graham, Jesse, Jonathan Haidt, Sena Koleva, Matt Motyl, Ravi Iyer, Sean P. Wojcik, and Peter H. Ditto. "Moral foundations theory: The pragmatic validity of moral pluralism."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5-130. San Diego: Elsevier, 2013.

Haidt, Jonathan.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08(4) (2001): 814.

Hall, Deborah L., David C. Matz, and Wendy Wood. “Why don’t we practice what we preach? A meta-analytic review of religious rac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4(1) (2010): 126-139.

Haselton, Martie G., and David M. Buss. “Error management theory: a new perspective on biases in cross-sex mind rea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1) (2000): 81.

Henrich, Joseph. “The evolution of costly displays, cooperation and religion: Credibility enhancing displays and their implications for cultural evolution.”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0(4) (2009): 244-260.

Hill, Peter C., and Ralph W. Hood. *Measures of Religiosity.* 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 1999.

Inglehart, Ronald, Christian Haerpfer, Alejandro Moreno, Christian Welzel, Kseniya Kizilova, Jaime Diez-Medrano, Marta Lagos, Pippa Norris, Eduard Ponarin, and Bi Puranen. *World Values Survey: Round Six - Country-Pooled Datafile Version*. Madrid: JD Systems Institute 12, 2014.

Johnson, Dominic. “Why God is the best punisher.” *Religion, Brain & Behavior* 1(1) (2011): 77-84.

Johnson, Dominic, and Oliver Krüger. “The good of wrath: Supernatural punishment an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Political Theology* 5(2) (2004): 159-176.

Johnson, Megan K., Wade C. Rowatt, and Jordan P. LaBouff. “Religiosity and prejudice revisited: In-group favoritism, out-group derogation, or both?”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4(2) (2012): 154.

Kurzban, Robert, and Mark R. Leary. “Evolutionary origins of stigmatization: the functions of social exclusion.” *Psychological Bulletin* 127(2) (2001) : 187.

Kurzban, Robert, John Tooby, and Leda Cosmides. “Can race be erased? Coalitional computation and social categoriz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98(26) (2001): 15387-15392.

Lanman, Jonathan A. “The importance of religious displays for belief acquisition and seculariz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Religion* 27(1) (2012): 49-65.

Laurin, Kristin, Azim F. Shariff, Joseph Henrich, and Aaron C. Kay. “Outsourcing punishment to God: Beliefs in divine control reduce earthly punishment.”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279(1741) (2012): 3272-3281.

McCullough, Michael E., and Jr. Worthington, Everett L. "Religion and the forgiving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67(6) (1999): 1141-1164.

McKay, Ryan, and Harvey Whitehouse. "Religion and mor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41(2) (2015): 447.

Miyatake, Sanae, and Masataka Higuchi. "Does religious priming increase the prosocial behaviour of a Japanese sample in an anonymous economic gam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1) (2017): 54-59.

Molho, Catherine, Joshua M. Tybur, Ezgi Güler, Daniel Balliet, and Wilhelm Hofmann. "Disgust and anger relate to different aggressive responses to moral violations." *Psychological Science* 28(5) (2017): 609-619.

Nelson, Todd D.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London: Psychology Press. 2009.

Norenzayan, Ara. *Big Gods: How Religion Transformed Cooperation and Conflict*.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Norenzayan, Ara, and Azim F. Shariff. "The origin and evolution of religious prosociality." *Science* 322(5898) (2008): 58-62.

Oaten, Megan, Richard J. Stevenson, and Trevor I. Case. "Disgust as a disease-avoidance mechanism." *Psychological Bulletin* 135(2) (2009): 303.

Purzycki, Benjamin Grant, Coren Apicella, Quentin D. Atkinson, Emma Cohen, Rita Anne McNamara, Aiyana K. Willard, Dimitris Xygalatas, Ara Norenzayan, and Joseph Henrich. "Moralistic gods, supernatural punishment and the expansion of human sociality." *Nature* 530(7590) (2016): 327-330.

Rozin, Paul, Laura Lowery, Sumio Imada, and Jonathan Haidt. "The CAD triad hypothes is: a mapping between three moral emotions (contempt, anger, disgust) and three moral codes (community, autonomy, div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4) (1999): 574-586. DOI: 10.1037//0022-3514.76.4.5 74.

Russell, Pascale Sophie, and Roger Giner-Sorolla. "Moral anger, but not moral disgust, responds to intentionality." *Emotion* 11(2) (2011): 233-240. DOI: 10.1037/a002 2598

Sarkissian, Hagop. "Supernatural, social, and self-monitoring in the scaling-up of Chinese civilization." *Religion, Brain & Behavior* 5(4) (2015): 323-327.

Schaller, Mark. “The behavioural immune system and the psychology of human sociality.”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66(1583) (2011): 3418-3426.

Schaller, Mark, and Steven L. Neuberg. “Danger, disease, and the nature of prejudice (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 (2012): 1-54.

_____. “Danger, disease, and the nature of prejudice (s).”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54. San Diego: Elsevier, 2012.

Shariff, Azim F., and Ara Norenzayan. “God is watching you: Priming God concepts increases prosocial behavior in an anonymous economic game.” *Psychological Science* 18(9) (2007): 803-809.

Slingerland, Edward, and Joseph Bulbulia. “Introductory essay: Evolutionary science and the study of religion.” *Religion* 41(3) (2011): 307-328.

Srull, Thomas K., and Robert S. Wyer. “The role of category accessibi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information about persons: Some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0) (1979): 1660-1672.

Thomassen, Einar. “Are gods really moral monitors? Some comments on Ara Norenzayan's Big Gods by a historian of religions.” *Religion* 44(4) (2014): 667-673.

von Rueden, Christopher R., Aaron W. Lukaszewski, and Michael Gurven. “Adaptive personality calibration in a human society: effects of embodied capital on prosocial traits.” *Behavioral Ecology* 26(4) (2015): 1071-1082.

Watts, Fraser, and Léon P. Turner. *Evolution, Religion, and Cognitive Science: Critical and Constructive Essay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Watts, Joseph, Joseph Bulbulia, Russell D. Gray, and Quentin D. Atkinson. “Clarity and causality needed in claims about Big God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9 (2016): e28

Watts, Joseph, Simon J. Greenhill, Quentin D. Atkinson, Thomas E. Currie, Joseph Bulbulia, and Russell D. Gray. “Broad supernatural punishment but not moralizing high gods precede the evolution of political complexity in Austronesia.”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282(1804) (2015): 20142556. https://doi.org/10.1098/rspb.2014.2556

Yilmaz, Onurcan, and Hasan G. Bahçekapili. "Supernatural and secular monitors promote human cooperation only if they remind of punishment."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7(1) (2016): 79-84.

Zietsch, Brendan P. "Individual differences as the output of evolved calibration mechanisms: does the theory make sense in view of empirical observation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7 (2016): 71-75.

Abstract

Religious Norms as a Moderating Variable for Social Prejudice:

Empirical Clues to Doubt

Koo, Hyung Chan (Sogang Univ.)
Ryou, Jihyun (Seoul National Univ.)
Park, Hanson (Seoul National Univ.)

This study is aimed at investigating whether religious norms or secular norms act as a moderating variable for social prejudice from an evolutionary cognitive perspective, with the goal of gaining insights to help understand and overcome social prejudice. The research involved Korean Protestant, Buddhist, and Catholic believers, examining whether their levels of social prejudice were moderated by their religious beliefs. This study also compared prejudice levels when secular norms were activated. A nonparametric analysis of variance (ANOVA) was employed to compare the three groups. The results indicated that neither religious nor secular norms functioned as a moderating variable for social prejudice. Specifically, the priming of these norms did not significantly moderate social prejudice across all three religions, failing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Furthermore, the priming effects within each group showed very low effect sizes (Cohen's d).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conducted on East Asian populations and align with recent studies in Korean society, which found that both religious and secular priming did not elicit prosocial behavior. Consequently, the hypothesis regarding the evolution of Western religions, based on the premise of supernatural watchers, may not exhibit a cross-cultural universality. Additionally, the cognitive and adaptive aspects of religion could have evolved separately. More

refined comparative religious studies that differentiate these aspects within an evolutionary anthropological framework are needed.

Keywords: social prejudice, secular norms, religious norms, priming,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evolutionary anthropology